

동북대지진 영향과 한일산업 협력 방향

2011. 6. 2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日本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2010年

글로벌 전자업계 1위, 삼성



“三星電子が日本を 앞선 것처럼 보이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 멀었다.”

(2011년 1월11일, 이건희 회장 인터뷰)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 일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일본은 끝났다!
- 그럼에도 일본이 건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 TPP 참가 여부 결정과 한일 FTA
- 일기예보 보다 전력예보에 더 관심
- 지진 피해 돕기 성금 모금이 주는 의미

❖ 일본은 여전히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벤치마킹하고 협력을 구해야 하는 상대

- 用日전략이 필요

지진 이후 對日 수출입 동향

- ❖ '11.5월 대일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6.4% 증가한 31억불을 기록
 - 합판(2,228.9%), 생면사(820.7%), 음료(360.3%), 양초·성냥·라이터 (137.5%) 등 지진 피해복구품 및 생필품 수출 급증세 지속
 -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화공품, 은 등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액정디바이스는 감소세

〈 對日 수출입 현황 〉

(억불, %, 전년동월대비)

구 분	' 11.1월	2월	3월	4월	5월
수출액	30	27	33	36	31
	(57.4)	(38.4)	(53.8)	(63.0)	(36.4)
수입액	52	53	62	58	56
	(23.6)	(7.0)	(8.4)	(3.8)	(13.9)
수 지	△12	△26	△29	△22	△25

자료 : 관세청

※ 아지켄 세미나 :한국의 수출전략과 기술네트워크 (7.12, 藤田, 水野, 御手洗)

동북대지진이 협력사업에 끼친 영향

❖ 지진 영향으로 5월까지 휴업상태

- 취소 : 중소기업CEO포럼
- 연기 : 한국물산전, 한일경제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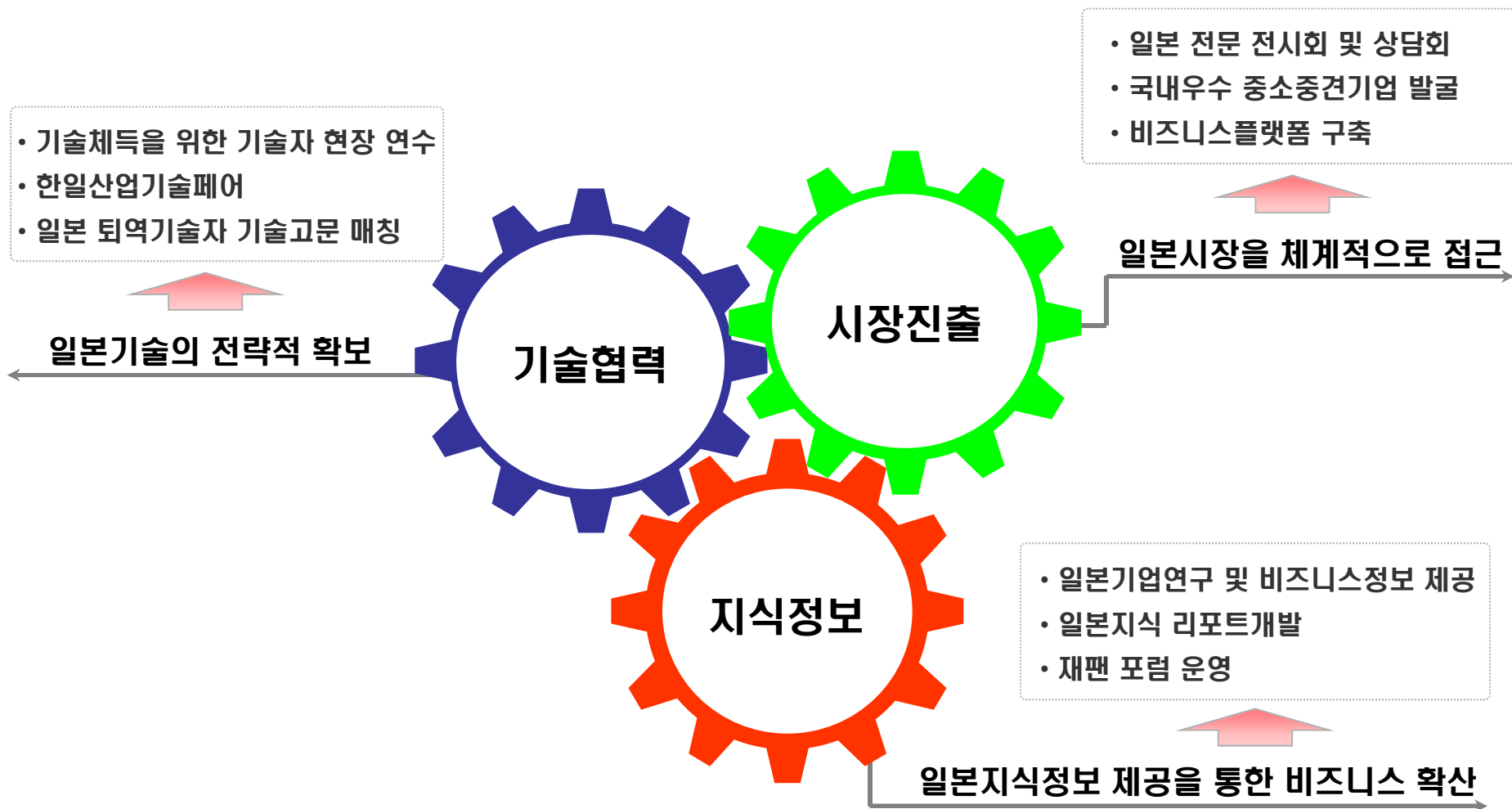
❖ 6월부터 협력사업 추진이 정상화되고 있음

- ❖ 동북대지진으로 여파로 일본이 부품공급원으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듯 했으나 오래가지 못함
 - 지진 피해 신고센터 설치 등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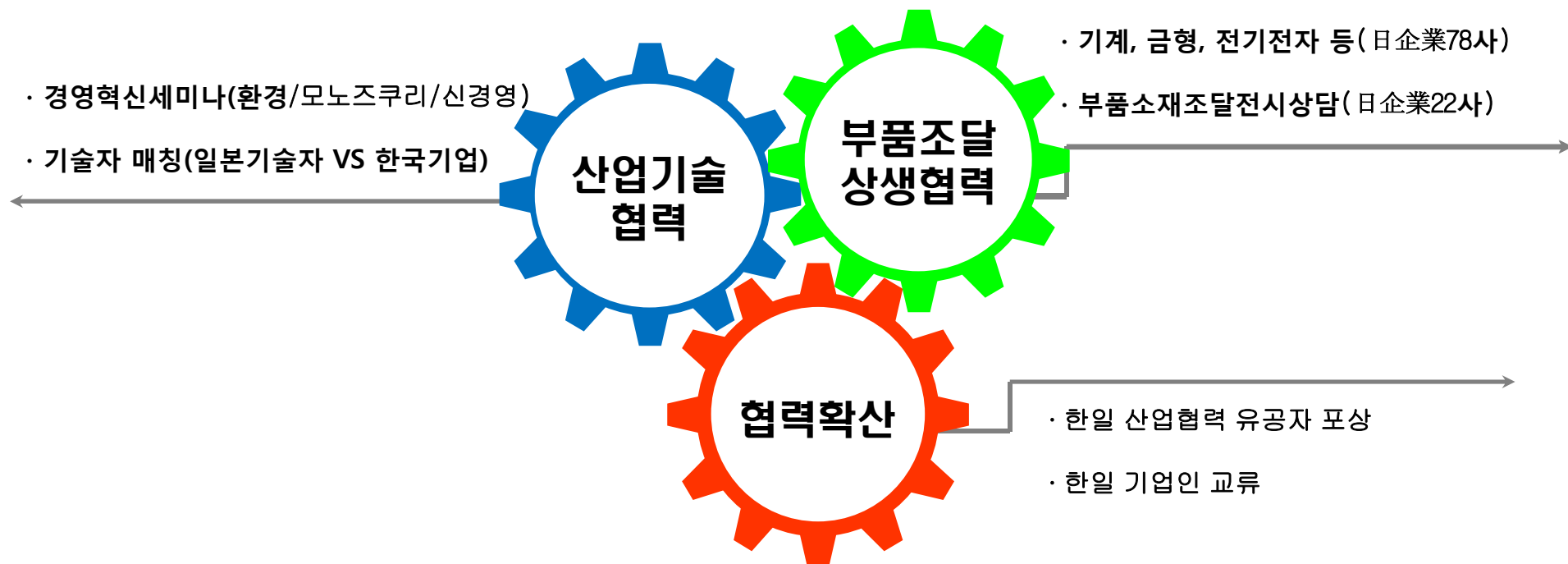
- ❖ 설립일자 : 1992. 9. 1 [일한재단 1992.12.25]
- ❖ 설립목적 : 한 · 일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촉진과 상호교류를 통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정립에 기여
- ❖ 이 사 장 : 조석래 이사장 [효성 회장]
 - * 일한재단 이사장: 佐々木 幹夫(Sasaki Mikio)
- ❖ 예산규모 : 80억[일한재단 30억 포함]
- ❖ 인 원 : 23명[경제협회 4명]

한일재단의 사업영역



한일산업기술 FAIR 2011 개요

- 비전: 한일 부품소재 상생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교류 한마당 (일본기업 100사, 한국기업 300사 참가)
- 배경: 한일 정상간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경제협력을 대표하는 사업 (지식경제부/경제산업성 주최)
- 일시 · 장소: 2011.9.29(목)~30(금), 서울롯데호텔



- 주최: (韓)지식경제부 (日)경제산업성
- 주관: (韓)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日)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 협력: (韓)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회, 기계산업진흥회, 금형공업협동조합, 산업기술진흥원
(日)키타큐슈시, 일본기계수출조합, 오사카상의, ERINA, GPC

산업인력역량강화사업

❖ 2011 계획

- 부품소재기술인재육성 : 15명
- 녹색환경기술인재육성 : 30명
- 차세대연구인력파견 : 50명



❖ 사업 환경

- 한국기업을 경쟁기업으로 인식하면서 일본기업들이 협력을 회피
- 기술자보다 R&D 연구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대응 전략

- 한국형 모노즈쿠리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 * 한국형 모노즈쿠리 인재란 개발-구매-생산-판매 전과정을 기획할 수 있는 인재
 - * 일본 도쿄대학 모노즈쿠리 경영연구센터와 협력, 한국형 모노즈쿠리 인재육성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일본퇴역기술자 고문매칭사업

❖ 2011 계획

- 일본기술자 DB 구축 : 500명
- 일본기술자 기술 매칭 : 200건
- 일본기술자 고문 매칭 : 60명

❖ 사업 환경

- 일본기술자의 기술개발 경험을 단기간에 전수
- 사업 초기에는 일본에서 기술유출을 우려하여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
 - * 150명['08] -> 300명['11]
- 기업의 일본기술자 수요는 기술개발에서 마케팅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일본기술자 활용성과 조사
 - * 활용분야 : 제품설계, 생산제조기법, 소재·재료·부품개발 순

❖ 대응 전략

- 일본기술자 확보를 위해 7개권역에 실버네트워크 구축
 - * 지진 이후 일본기술자들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 * 일본기술사회와 MOU 체결['11.6.16]
- 마케팅분야까지 일본기술자 영역 확대

아시아경제

한국中企, 일본기술과 '찰떡궁합'

지경부-한일재단 '퇴직자 기술지도사업' 432억 창출효과

경남 함안에 위치한 산업·화공용 보일러업체인 비에이치아이(옛 범우이앤지)는 지난해 일본 발족하리지에서 30년의 실무경험과 10년간의 제조경력을 갖춘 일본 퇴직기술자로부터 6개월간 기술지도를 받았다.

이 회사는 이미 고품질 고효율 열교환기를 제기에 공급한 공교로 일본 도사비로부터 최우수 공급사로 선정됐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은 것. 열교환기는 성능이 더욱 향상돼 지난해 열교환기만으로 300억 이상의 추가 매출을 얻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유성 금속기 제조업체인 GGM은 일본 세이부전기에서 41년간 산업기계 설계

직을 담당한 일본 퇴직자로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기술지도를 받았다.

그 결과 제품 설계시간은 5% 단축돼 연간 3000만원을 절감했다. 가



공기업을 전수에 분량별은 2% 줄었고 생산성은 30% 늘면서 연간 500만원을 절약했다. 이 회사는 올해 유성금속기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 2010년에는 20억원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2007년부터 운영중인 일본 퇴직기술자 기술지도 사업의 성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업은 일본 퇴직기술자와 국내 수요 중소기업을 매칭시켜 기술지도 기간의

임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12개 기업이 참여한 지난해의 경우 투입사업비는 3억원에 불과하지만 사업효과는 432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대상기업이 20개사로 늘어났으며 지원비율도 20%에서 40%로 증액됐다. 일본 퇴직자들의 기대는 물론 대 한국 인식개선에도 효과가 크다. 국내 12사에 지난해 5개월간 기술지도를 한 오우보 아스의료에는 국내 3개 업체와 협력관계로 업무를 펼칠 것으로 안다.

그는 "설계업무를 계속하고 싶었으나 현장에서 할 수 없어 퇴직후 개인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1978년 제품거래로 한국과 연이 닿은 후 지금까지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어떤 시절에는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으나 현재는 한국, 한국인을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aund@



한일기업간 비즈니스 연계사업

❖ 2011 계획

- 오프라인 상담회 : 4회
- 온라인 매칭 : 200건

❖ 사업 환경

- 양국 기업 DB 부족으로 매칭에 한계가 있음
- 수시로 일본시장, 일본기업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성약 사례

#1 우메모토머티리얼 ↔ 한국석유공업(40억원)

#2 OK EL ↔ 글로벌트러스트(25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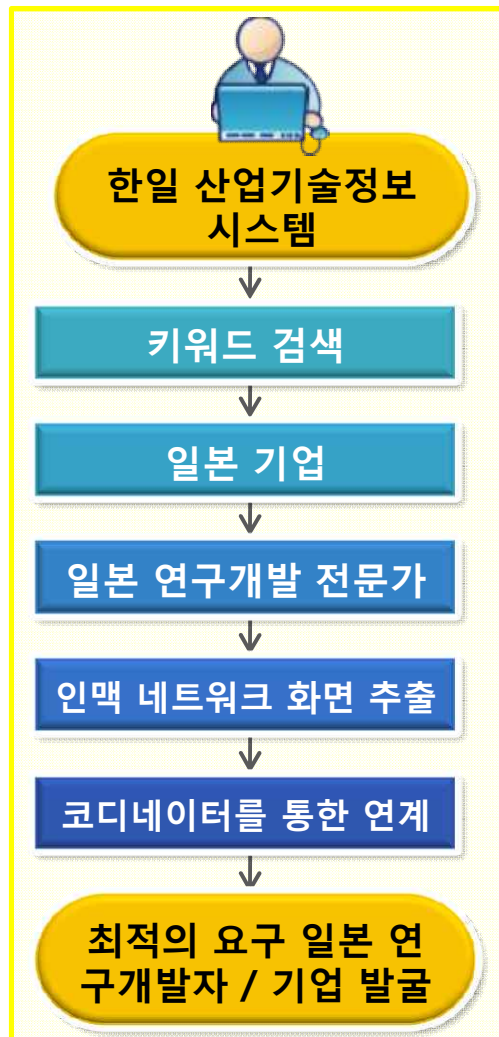
#3 UQ커뮤니케이션 ↔ 모다정보통신(연간 500억)

❖ 대응 전략

- 일본기업의 조달 수요를 파악하여 DB를 구축하고 가능성 있는 분야 집중 지원
- DB에서 자동 매칭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 산업기술통합정보시스템 오픈 예정('11.7월)



❖ 발굴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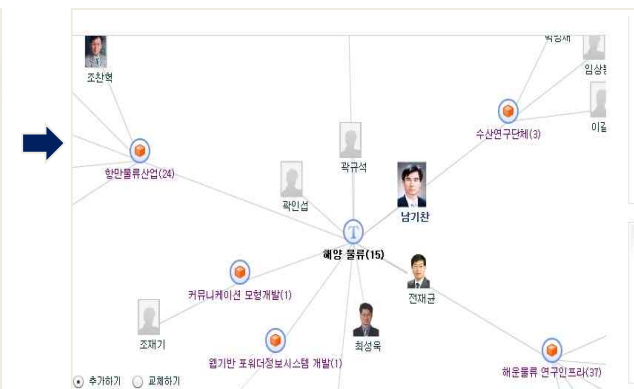
❖ 일본 연구 개발자/ 기업

NO.	ID	地域	種別	情報種	見出し
1	MYNU00004	山梨県	学官	ID情報	研究分野別土壌環境システム、環境動態解析(研究分野を表すキーワード)・モーニング
ID詳細情報					表示終了
	項目	内容			
	ID番号	MYNU00004			
	年度・創設年・設立年	39			
	職階	大学研究者			
	勤務	山梨県			
	キーワード	リモートセンシング エコロジリ 放射計遠達 沿岸汚濁 [研究分野別土壌環境システム 環境動態解析] [研究分野を表すキーワード]・リモートセンシング エコロジリ 放射計遠達 沿岸汚濁 [研究テーマ]・リモートセンシングによる沿岸海域汚濁解析のための放射計リモートの開発/リモートセンシング 法による遠方・沿岸環境 研究分野: 環境動態解析(研究分野) 土壌環境システム(国内共同研究)・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炭素貯留エコロジの動態解析 研究テーマ: リモートセンシング 放射計遠達			
	アブスト	研究分野: 環境動態解析(国内共同研究) 研究対象(国・地域): 韓国/リモートセンシングによる非破壊・非接触・適宜性定量的な基礎的研究(共同)・環境工学(土壌環境システム)・環境工学(1990/3/31)・Globalization transfer model for sustainable remote sensing of carbon cycles in coastal zone J. Global Environment Engineering(工学雑誌), 2008/6, 13-31 / Seasonal variation of chemical composition of aerosols in owa State, Antarctica in 2001 Polar Meteorology and Geoclimatology(学術雑誌), 2003/17/68-90 / 研究報告(その他の活動)可(建設第一局)・リモートセンシングエコロジリ(研究分野)・環境動態解析の解析(実証研究等, 2002-2003) エコロジリ(基礎研究)・環境動態解析(実証研究等, 2002-2005)			
	メモ	[出典: 大学院 研究資料]・北海道大学博士(工学)・環境工学(1998/4/1)・1998/4/1出身校 専攻: 専攻北海道大学(工学)・工学 衛生工学1994(取得学位)博士(工学)(課程)・リモートセンシング学会(国内), 土木学会(国内)・大気環境学会(国内), 日本気象学会(国内), American Geophysical Union(国外), 気象学会(国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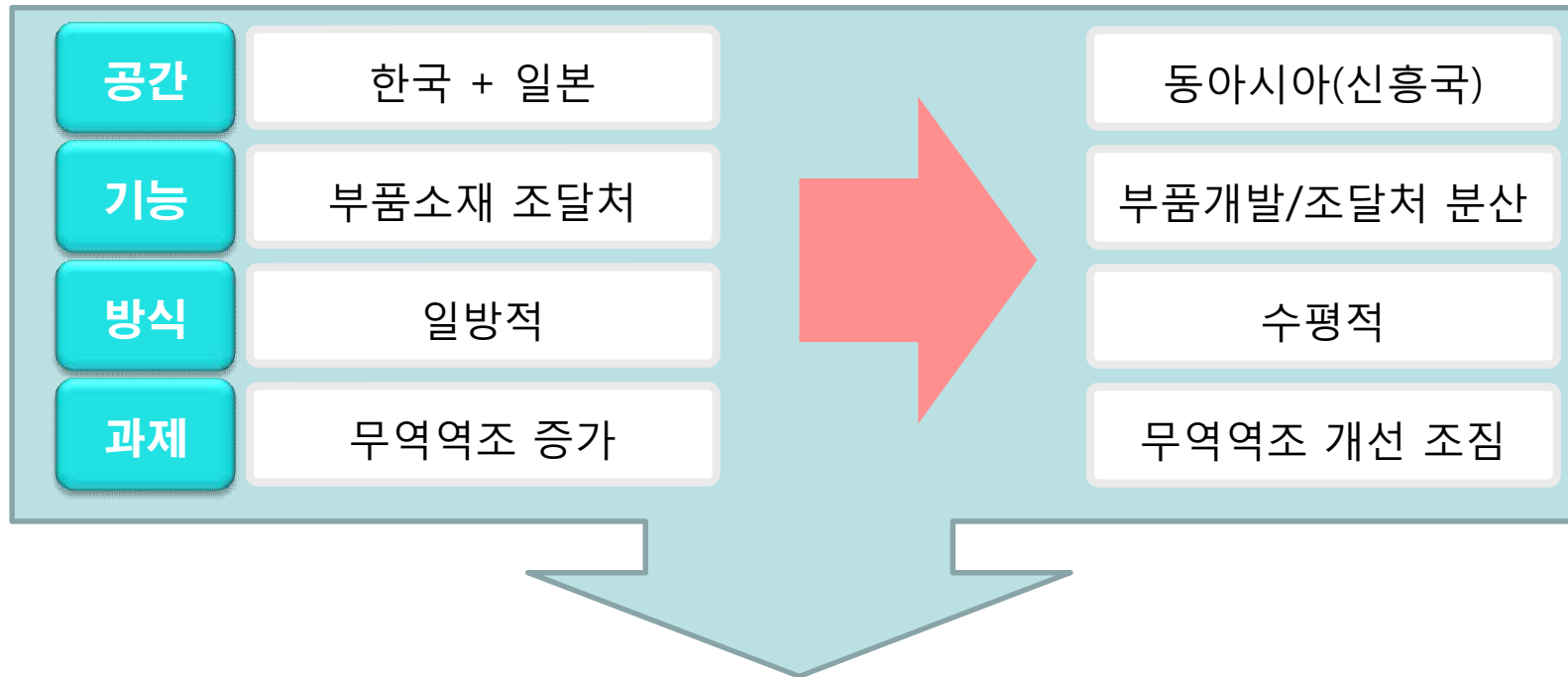
**고부가가치
한일 산업기술정보
매칭으로 우리 기업
의 R&D 경쟁력강화**



❖ 온라인(실시간)
-인맥 네트워크 파악(향후 구축)



지진 이후 협력의 패러다임 변화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증가
제3국에서의 한일 연계
대일 수출 증가
인재 교류 확산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증가

❖ 분산화전략

- 오사카, 후쿠오카, 시코쿠, 호쿠리쿠 등 국내 안전지역으로 이전
- 미국, 중국, 대만, 한국 등 해외로 이전
 - * 호야(평택)는 비구면렌즈 소재를 해외생산 검토
 - * 산토리맥주 한국과 중국에서 위탁생산 검토
- 초기에는 해외거점 분산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으나(21%), 산업공동화를 우려 [2011통상백서]하여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

❖ 요코하마시의 한국기업 유치 토크세미나 ['11.6.16, 서울]

- 진출기업 : 마미로봇, 삼성요코하마연구소, KCC, 인터렉티브미디어 믹스, 바브켓 등

❖ 부품소재전용공단 투자조사단 유치

- 조사단개요
 - * 지역 : 익산, 군산지역 / 시기 : 10.26-28 / 규모 : 20사 / 주관 : 외무성, 경제산업성, 일한재단
- '09, '10년 투자조사단 파견(구미, 부진, 포항, 울산 등)
- 한국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일본기업으로 구성 요청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증가

*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는 200개사의 진실?

내용	한국기업	일본기업
일본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김해에 유치	KT	소프트뱅크
첨단 자동차 부품소재인 HEMA공장 설립	충남	도쿄 MR사
동해 강릉 삼척 일대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강원도	프라크 시스, 이즈미 코퍼레이션, 마쓰바라 등
여수 울촌산단에 올해 말까지 1400만달러를 투자 제2공장을 건설	호남권	엘티아이
일본 식품업체들의 남해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 생산 거점을 한국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	나주, 진주, 함안, 사천	이온그룹
CJ제일제당, 日 하야시바라 인수 추진	CJ제일제당	하야시바라
해태제과, 日 가루비와 14년만에 합작사 설립	해태제과	가루비
2차전지 재료 합작사 설립	삼성정밀화학	도다
일본과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장	GS칼텍스	JX NOE(옛 신일본석유)
한일 기업연합, 브라질 희토류광산 공동투자	포스코	신일본제철, JFE스틸 등
200억엔(2600억원)을 투자, 경기도 평택에 스마트폰용 터치패널 공장 건설		스미토모화학
한국에 탄소섬유 생산공장 설립 계획 (6.28 기공식)		도레이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공장에 1억3000만달러 투자		아사히글라스

제3국에서의 한일 연계

- ❖ 일본종합상사 6개사 조사 금액 : 1조4750억 엔('10년까지)
- ❖ JBIC-EXIM공동세미나 개최('11.6.24, 서울)
- ❖ 최근 한일기업의 제3국 협력 사례

회사명	내용
(韓) 시그넷 시스템 (日) 마루베니 상사	- 한국 전기차충전기업체인 시그넷시스템의 충전기를 일본 마루베니 상사의 판매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계 시장 진출
(韓) KT (日) NTT도코모 (中) 차이나 모바일	- 동북아시아 스마트 벨트 구축 합의 - 3사간 데이터 로밍, 음성 요금 장벽을 제거하여 3시간 와이파이존 공동 활용, 공동 앱스토어 구축
(韓) 한국가스공사 (日) 미쓰비시상사	- 인도네시아 LNG 생산기지 공동 건설 및 투자
(韓) LG CNS (日) SBI 금융그룹	- 합작사 'SBI-LG시스템즈' 설립 - 日 금융 IT 시장 진출(SBI 그룹 물량 수주) - 향후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금융IT 시장 확대

최근 점점 활발해지는 일본기업들의 M&A

- ❖ 동일본 대지진으로 주춤하던 일본기업들의 M&A 활동이 5월 이후 급속히 회복되고 있음.
 - 2011년 1~5월 기간의 M&A는 5조 7,929억 엔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그 중에서도 특히 해외기업 매입이 2조 7,095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 일본기업들의 M&A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신흥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경영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해외 유망기업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임.
 - 사업전망이 밝은 새로운 분야, 대표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M&A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
 - 경쟁력이 약화된 분야 혹은 약화될 우려가 높아지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한 방어적 M&A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
- ❖ 최근에는 일본기업이 한국기업을 M&A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인재 교류 확대

- ❖ 인재교류는 전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교류에 초점을 두고 추진
 - * 기술인력 및 R&D 인력교류 환경조성
 - * 대학원생 연구활동 지원
 - * 대/중소기업의 인재 교류 확대
- ❖ 비교우위 부분의 협력 · 교류 추진
 - * 부품소재 등의 분야 인재교류
- ❖ 자격상호 인정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일본기업의 구인 요구가 많은 분야인 자동차정비, 기계설비분야 등 제조업과 의료분야를 검토

지진 이후 한일 협력확대를 위한 제언

❖ 신뢰성 지수 개발

- 일본시장 진출의 성공비결, 비즈니스 신뢰
 - * 일본시장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 그것은 바로 '신뢰' 이며 일본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의식
 - * 일본기업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한국기업 신뢰성 지수' 를 개발

❖ SJC회원 가입을 통한 일본기업과의 소통 강화

- 국내 일본기업은 2000개사 정도 존재
- 10%이상 자본을 보유한 기업은 500사, SJC회원기업은 360사

〈 각 지역의 일본인회〉

명칭	주요업종	회원사	주요기업
인천회	기계, 자동차 부품	20~30	다이후크, 요코가와전기, 하이렉스, 후타바전자
평택회	LCD, 반도체 재료	40~50	닛토덴코, 알박, 아반스트레이트, 호야
천안회	LCD, 반도체 장비, 재료, 자동차	20여개	칼소닉, 아이산, 키프코 히타치, 아드반테스트
성남회	LCD, 반도체 장비, 재료	20여개	니콘, 동경일렉트론, SUMCO
오창	LCD, 반도체재료	20여개	JSR, Lintec, Toray
구미	LCD, 반도체재료	10여개	아사히글라스, NEG, Toray
파주	LCD, 반도체재료	10여개	NEG, TOK
부산일본인회	부산지역 기업	50~60	야마토공업, 고베제강

지진 이후 한일 협력확대를 위한 제언

❖ 한일 경제협력 무드 조성

- 대지진 영향으로 양국 경제 관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럴 때 일수록 한일간의 경제협력을 더 한층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금년 9월은 한일경제인회의(9.28~29), 한일산업기술페어(9.30), 한일 축제한마당(9.25/일한교류 おまつり: 10.1)를 잇달아 개최하여 한일 협력이 크게 주목받을 것임